

중증 치매환자 이르면 9월부터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받는다

하루 이용료 '2만원' 간병 부담 해소 기대

중소기업 부장인 K(50)씨. 주위에서 마음씨 좋고 재밌는 얘기 잘하는 사 람으로 인기가 높지만 혼자 있을때는 항상 우울감에 빠져 있다. 팔순의 노 모가 치매로 잔병치레가 심하기 때문 이다. 노모로 인해 이혼을 한지도 오 래다. 집근처에 살던 여동생 가족들은 노모를 모시기 위해 아예 K씨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친 딸이라고 하지만 치매 노인을 모시기 에 K씨의 여동생도 한계에 부딪혔다.

몇년째 마음편히 여행은 커녕 외출도 못하는 처지에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 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정부가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해 치매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로 했다는 소식에 큰 기대감을 갖고 시행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9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제2차 장기요 양위원회에서 심의했다가 26일 밝혔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치매환 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1·2급 중증 치매환자 를 돌보는 가족이 신청하면 연간 6일 까지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치매노인을 단기보호기 관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 제를 시행했으나 가정을 떠나기 꺼려 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24시 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으로 이 중 1만9570원은 이용자가, 나머지 16 만9430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보호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 며 간호사가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하여 적정서비스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콜센터 1577-1000)에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계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 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 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1~4 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 면 인지자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 프로그램은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 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 하도록 개선했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학생 학자금대출 2016년 상반기분 이자 지원 신청을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4월 1일 현재 전 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 장학재단에서 2016년도에 학자금대 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으 로, 지원금액은 올해 지원받은 학 자금대출금(생활비 제외)의 발생이 자 전액이다. 신청 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주시 홈페이지 접수 창에서 별도 의 기타 제출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시는 지원 대상 적격 확인 및 대 출정보 조회를 통해 오는 7월 25일 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전주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인별 한국 장학재단 대출금 상환계좌로 지급 할 예정이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법무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상 대적으로 1인당 지원금액이 적지 만 향후 누적학기 적용 등 사업 확 대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의 신청 율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적극 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 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 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 주 시 교육법무과(063-281-5311)로 문 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26일 도내 유일의 로드형 카라반 생산업체이자 자동차 분야 성장유망기업인 (주)가자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주시, 지역 중소기업 '기 살리기' 나서

김승수 시장, 로드형 카라반 생산업체 가자 애로사항 수렴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경제의 근간 이 되는 작지만 강한 지역기업 기 살 리기에 나섰다. 김 시장은 26일 도내 유일의 로드형 카라반 생산업체이자 자동차 분야 성 장유망기업인 (주)가자(대표 전용희)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직접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우리기업 기(氣)살리기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방문한 (주)가자는 팔복동에 위 치한 로드형 카라반(캠핑카) 제작업 체로, 지난 2012년 설립돼 카라반 공 정 기술을 개발한 후 자체적으로 로 드형 카라반을 생산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주)가자는 이날 그간 생산해온 20대의 로드형 카라반을 무 안군 오토캠핑장에 납품하기도 했다. 특히 로드형 카라반은 국내에서 자 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가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재)자동차기술연구원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카라반 개념을 고정 컨테 이너로 바꾼 경쟁업체들과는 다르게 이동형 카라반을 생산하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주)가자 캠핑카의 전 국 휴양지 설치 납품은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주의 기업들이 인지도를 높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강소 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임금체불 50대 고공농성 풀어

군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고공농 성을 벌이다 경찰의 설득에 내려왔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 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51) 씨가 만취한 상태로 10층 높이의 크 레인 리프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 였다.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경찰과 소방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고 설득 에 들어갔다. A씨의 고공시위는 경찰이 건축주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지급 등 증재를 통해 2시간만에 스스로 리프트에서 내려왔다. /안진수 기자

음주운전 전과 6범 50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

음주운전 전과만 6범인 5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26일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57분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으로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 벌을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 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내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전주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내달 2 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총 13만 62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의 검증을 완료하고, 정확 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토 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열람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청 생태도시 계획과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일사원 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jonbuk.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절한 가격을 적 은 의견서를 작성해 양 구청 민원봉사 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 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현장 설명

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현 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 사의 현장설명을 듣고 싶은 시민은 의 견서를 이용해 현장설명제를 요청하 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 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 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할 계획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 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될 계획 이다. 양도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 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 과기준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경찰, 주택가 상습절도 3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26일 주택가에 침 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침입 절도)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 후 5시 20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주택 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중 집주인에 들기자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빈 집에 숨어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경남 동영시 한 음식점에 손님의 휴대폰을 훔친 혐 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검거 당시 김씨의 배낭에는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 엔화, 유로화 등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배낭에서 나 온 현금과 외화는 "할머니가 주신 돈 이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 어져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 죄를 조사 중이다. /안진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생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이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